

#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및 부모에의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이희영<sup>†</sup> · 하경선  
(<sup>†</sup> 부경대학교 · 반안중학교)

##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Hee-Yeong LEE<sup>†</sup> · Gyong-Shon HA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Banan Middle school)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f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lthough six hundred forty two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nal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2(male, 243; female, 249) ones. Participants completed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arental Attachment Inventory and School Resilience Scal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analyses revealed psychological separ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arental attachm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upon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can be useful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questions were suggested with several comments on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sychological separation, Parental attachment, School resilience*

### I. 서론

청소년은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 발달에 있어 학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최근 몇몇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교부적응은 진로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로 나타났고(매일경제, 2007.9.11일자 A2),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약 7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탈락은 청소년 개인에게 교육기회의 상실, 소속감의 상실, 비행, 취업의 어려움, 낮은 수입 등을 포함한 다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5, hylee@pknu.ac.kr

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중도 탈락은 또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기에 상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유진이, 2009).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문제 또한 학교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전화연, 2006). 학교부적응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칠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에 대한 적응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은 그들의 사회적응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송유미·이윤형, 2009).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친구 및 이성 관계, 학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은 급변하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장휘숙, 1999). 이러한 발달적, 환경적 특징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발달적, 환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생활부적응을 겪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생활적응이라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영향을 덜 받으며 학교생활적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이 있다. 최근에 수행된 한 연구(Roeser, Eccles, & Sameroff, 2000)에 의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업적, 정서적 문제를 겪는 중학생이 33% 정도 인데 반해 40%의 중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으며, LeFrancois (2001)도 청소년의 70-75%가 큰 어려움 없이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인차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최근 청소년 발달 관련 연구자들은 위협요인, 보호요인 및

적응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보이는 적응상의 개인차는 위협에 처한 개인들을 부정적인 경로에 처하게 하는 위협요인과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박현선, 1998; Compas, Hinden & Gerhardt, 1995).

이제까지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위협요인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부적응을 유발시키는 위협 요인을 찾고 이들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적응유연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조순가족 청소년(송유미·이윤형, 2009), 알코올중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남영옥·김재한, 2003), 빈곤 청소년(박현선, 1998), 가출 청소년(조규필, 2004), 성학대 피해 청소년(권해수, 2002) 등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요인 즉 보호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박현선(1998)은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감, 민주적 학교분위기, 민주적 양육태도, 계획성, 교과수업외의 활동참여가 이들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보호 요인임을 밝혔고, 알코올중독자 부모를 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남영옥과 김재한(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가족응집성 및 학교분위기가 이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 수행된 조순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송유미와 이윤형(2009)의 연구에서는 교사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들 또한 자신의 학교적응을 힘들게 하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리더십 생활기

술(김은경, 2005), 사회적 관계(정효선, 2008), 또래관계와 대처행동(유옥순, 2007)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부적응 문제 예방 및 적응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적응유연성을 검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은 크게 개인관련 보호요인, 가족관련 보호요인 및 사회 관련 보호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학교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호 요인들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는 이중 개인 요인(즉, 리더십 생활기술, 대처행동) 및 사회 요인(즉, 또래관계, 사회적 관계)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개인 요인과 사회 요인에 관한 정보는 이들의 원만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들의 발달을 보다 종합적으로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 외에 가족 요인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에 있어 가족 또는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몇몇 연구자들이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고 연구 결과 민주적 양육태도(박현선, 1998), 가족응집성(남영옥 · 김재한, 2003), 가족지지(유성경, 2000) 등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보호 요인을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적응유연한 경로를 따라서 발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다(신현숙, 200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보호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청소년의 보호자원을 확충하는 설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장희숙, 2003).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검토된 가족 관련 변인은 제한적이다. 보다 종합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 및 적응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가족 관련 변인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의 애착을 들 수 있다. 심리적 분리는 청소년들이 태도적, 갈등적, 정서적, 기능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Hoffman, 1984)을 의미하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자녀간의 강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유대를 의미한다(Armsden & Greenberg, 1987).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오랫동안 청소년이 직면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인식되어 왔다(Blos, 1967). Okun(1984)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향후 발달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Blos(1967)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가족 체제 이론가들(예, Bowen, 1978; Minuchin, 1974)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가족체제이론가들은, 정신분석이론가들과는 달리 분리-개별화 과정의 정신내적 과정보다는 가족간의 교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 체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 과정은 청소년이 분리되고자 하는 가족 체제 맥락 내의 분화수준과 관련이 있다(Anderson & Sabatelli, 1990). Bowen(1978)에 의하면, 잘 분화된 가족은 분리-개별화 과정을 촉진시키는 반면에 잘 분화되지 못한 가족은 이 과정을 차단하거나 방해하게 된다고 한다. 정신분석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체제이론가들도 분리-개별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Kerr와 Bowen (1988)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미분화가 다양한 부적응적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이한 이론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이론과 가족체계이론은 공통적으로 부모-청소년 분리 관계가 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청소년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은 많은 학자들(예, Blos, 1967; Bowen, 1978)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정체감 발달, 적응, 진로성숙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발달 영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예, 이희영·최태진, 2004; Lee & Hughey, 2001; Palladino & Blustein, 1994).

청소년 발달에 있어 심리적 분리를 강조하는 관점은 부모와 자녀간의 강력한 심리적 유대 즉 애착을 강조하는 이론가 및 연구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관계가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애착 이론의 기본 틀은 Bowlby(1982)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영아와 양육자간의 애착 관계의 질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 애착 관계의 질이 영아의 이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애착 이론은 처음에 주로 영유아기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져 왔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질과 다양한 영유아 발달 현상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영유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애착 이론의 기본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Bretherton, 1985; Sroufe, 1986).

자녀 발달에 있어 애착의 중요성은 영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된다(Ainsworth, 1989). Bowlby(1982)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 부모와의 유대는 성인기까지 계속되며 수많은 방식으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청소년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 관계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적절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못해 제대로 연구되지 못하다가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Armsden & Greenberg, 1987)를 포함한 몇몇 도구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연구 결과(예, 김희수, 2004; Rice & Whaley, 1994; Quintana & Lapsley, 1987; Rice, Cunningham, & Young, 1997; Rice & Cummins, 1996) 부모와의 애착은 적응, 정체감 형성, 사회적 유능감, 자존감,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발달 및 적응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 애착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보호요인으로써 이들 두 변인을 검토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심리적 분리와 부모 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와의 애착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H 군의 가, 나, 다 급지와 G 군에서 각각 1개교씩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였으며, 학급별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 나 급지의 학교는 4학급씩, 다 급지는 6학급, 기장군의 학교는 5학급, 모두 19학급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질문지 642부를 배부하여 588

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지 않다고 표시하였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중복 응답이 되어 있는 질문지 96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492명(남학생, 243명; 여학생 249명)이었다.

## 2. 측정 도구

### 가. 심리적 분리

중학생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Hoffman(1984)이 개발한 심리적 분리 검사(PSI; 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정은희(1992)가 우리의 특성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검사는 기능적, 갈등적, 태도적, 정서적 독립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갈등적 독립만이 청소년 적응을 가장 일관성있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나(Rice, 1992; Choi, 2002),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 척도 중 갈등적 독립만 사용하였다. 갈등적 독립은 부모에 대한 지나친 죄책감, 불안,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한다. 이 검사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과 어머니로부터의 독립을 재는 69문항, 총 1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갈등적 독립을 재는 20문항과 아버지와의 갈등적 독립을 재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더 잘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갈등적 독립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나. 부모 애착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개정판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를 옥정(1998)

이 번안 한 것 중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형식은 자기보고식이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척도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 척도는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관계가 더 안전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아버지 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모두 .94로 매우 양호했다.

### 다. 학교적응유연성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류재중(2006)이 박현선(1998)이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재구성한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 척도(학교에 대한 흥미, 규범 준수, 학업태도)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84, 학교에 대한 흥미 .79, 규범 준수 .79, 학업태도 .6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예비분석 절차로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관계 변인(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부모와의 애착,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부와 모 간에 상호관련성이 높은지, 남녀학생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 평균점수 차이검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이는 부와 모 간에 상관이 높을 경우,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혹은 애착 점수를 통합하거나, 남학생, 여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

로 분석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연구문제 1>에 따라 중학생의 부모-독립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독립 점수와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에 적률상관계수 및 부모-독립을 투입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하위변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에 따라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애착점수와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에 적률상관계수 및 부모-애착을 투입변인으로 하고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하위변인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관계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성에 따른 차이 검증

심리적 분리와 애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 2)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들 세 관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이들 변인이 연구대상인 중학생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가. 심리적 분리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성에 따른 차이

<표 1>, <표 2>는 전체 대상의 부모-독립, 모-독립의 기술통계량 및 남, 여, 전체를 구별하여 부모-독립, 모-독립점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부모-독립, 모-독립에 대한 기술 통계량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모-독립	492	73.90	15.51	23.00	100.00
모-독립	492	76.32	14.24	33.00	100.00

<표 2> 남, 여, 전체 대상의 부모-독립과 모-독립 점수간 상관

	모-독립		
	남	여	전체
부모-독립	.59**	.63**	.62**

\*\* $p < .0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모-독립 점수( $M=73.90$ )에 비하여 모-독립점수( $M=76.32$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점수간의 상관은 집단에 따라서  $r=.59\sim.63$  정도의 계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관의 크기는 공선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 $r=.70$ , Tabachnick & Fidell, 1996) 보다 낮은 것으로서 후속분석에서 부모-독립과 모-독립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해서 연구대상 중학생의 성에 따라 부모-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남녀 학생 간 부모-독립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부모-독립	남	243	71.28	15.97	-3.74***
	여	249	76.45	14.64	
모-독립	남	243	74.12	14.32	-3.42**0
	여	249	78.47	13.86	

\*\*\* $p < .001$ , \*\* $p < .01$

<표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녀 학생 간에는 부모-독립과 모-독립 모두에서 평균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분석에서는 남학생, 여학생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 부모 애착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성에 따

른 차이

<표 4>, <표 5>는 전체대상의 부-애착, 모-애착의 기술통계량 및 남, 여, 전체를 구별하여 부-애착, 모-애착 점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차례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부-애착, 모-애착에 대한 기술 통계량

변인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애착	492	81.18	17.85	26.00	120.00
모-애착	492	87.88	17.06	36.00	120.00

<표 5> 남, 여, 전체 대상의 부-애착과 모-애착 점수간 상관

	모-애착		
	남	여	전체
부-애착	.57**	.50**	.53**

\*\* $p < .01$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학생들은 부-애착점수( $M=81.18$ )에 비하여 모-애착점수( $M=87.88$ )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점수 간의 상관은 집단에 따라서  $r=.50\sim.57$  정도의 계수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관의 크기는 공선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보다 낮게 나타나 후속분석에서 부-애착과 모-애착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어서 연구대상 중학생의 성에 따라 부와 모와의 애착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남녀 학생 간 부모-애착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부-애착	남	243	80.95	19.14	-.28
	여	249	81.40	16.53	
모-애착	남	243	86.12	16.28	-2.27*
	여	249	89.59	17.65	

\* $p < .05$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학생 간에는 모-애착에서 평균점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후속분석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각각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 학교적응유연성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성에 따른 차이

<표 7>, <표 8>은 전체대상의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남, 여, 전체를 구별하여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점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이어서 나타낸 것이다.

<표 7>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량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에 대한 흥미	492	23.16	4.78	10.00	34.00
규범준수	492	10.30	2.94	4.00	16.00
학업태도	492	9.53	2.27	5.00	14.00
전체	492	42.99	7.87	19.00	63.00

<표 8>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점수 간 상관

	1. 학교에 대한 흥미			2. 규범준수			3. 학업태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1	-	-	-						
2	.33**	.47**	.40**	-	-	-			
3	.30**	.45**	.37**	.39**	.46**	.44**	-	-	-
4	.86**	.88**	.87**	.69**	.78**	.75**	.63**	.72**	.68**

\*\* $p < .01$ ; 4 =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표를 보면 중학생들은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점수 중 학교에 대한 흥미와 규범준수, 학업태도 간에 집단에 따라서  $r=.30\sim.47$  정도의 계수 크기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관의 크기는 공선성을 고려할 만한 최소 크기보다 낮은 것으로 후속분석에서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변인들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하위변인 간에는 상관이 높고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상관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 중학생의 성에 따라 학교적응 유연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 학생 두 집단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남녀 학생 간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 검증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학교에 대한 흥미	남	243	22.62	5.16	-2.47*
	여	249	23.68	4.32	
규범준수	남	243	9.74	2.88	-4.21*
	여	249	10.84	2.91	
학업태도	남	243	9.24	2.27	-2.77*
	여	249	9.81	2.25	
전체	남	243	41.61	7.87	-3.89*
	여	249	44.33	7.66	

\* $p < .05$ , \*\* $p < .01$ , \*\*\* $p < .001$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녀 학생 간에는 학교적응유연성의 하위변인 평균점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분석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각각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2.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에 따라 부모-독립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독립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모-독립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에 대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과 <표 11> 참조). 다만 앞선 예비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유연성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 2>에서도 같은 이유로

남녀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학생의 부모-독립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중학생의 부모-독립 점수와 학교적응유연성 점수와의 상관

	종속변인	부-독립	모-독립
남	학교에 대한 흥미	.24**	.26**
	규범준수	.25**	.12
	학업태도	.09	.12
	전체	.28**	.25**
여	학교에 대한 흥미	.19**	.24**
	규범준수	.19**	.20**
	학업태도	.10	.20**
	전체	.21**	.27**

\*\* $p < .01$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부모-독립( $r = .28, p < .01$ ), 모-독립( $r = .25, p < .01$ )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 중에는 규범준수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모-독립( $r = .12$ )과의 관계보다 부모-독립( $r = .25, p < .01$ )과의 관계에서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부모-독립( $r = .21, p < .01$ ), 모-독립( $r = .27, p < .01$ )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 중에는 학업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부모-독립( $r = .10$ )과의 관계보다 모-독립( $r = .20, p < .01$ )과의 관계에서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11>을 보면, 남학생의 부모-독립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규범준수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7.6%, 6.4%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01$ ), 모-독립은 각각 1.1%, 1.2%의 설명력에 그쳤으며 특히 규범준수와 모-독립은 반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흥미는 모-독립이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6.5%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부모-독립은 1.2%의 설명력에 그쳤다. 여학생의 모-독립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하위변인 모두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3.8% ( $p<.01$ )~7.1% ( $p<.001$ )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독립은 0.1%~0.8%의 설명력에 그쳤다.

<표 11> 부모-독립에 따른 학교 적응유연성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F
					변	화		
남	학교에 대한 흥미	모-독립	.255	.065	.065	.255	16.80***	
		부-독립	.277	.077	.012	.133	3.04	
	규범준수	부-독립	.253	.064	.064	.253	16.55***	
		모-독립	.256	.065	.001	-.043	.31	
	학업태도	모-독립	.116	.013	.013	.116	3.29	
		부-독립	.120	.014	.001	.037	.21	
	전체	부-독립	.275	.076	.076	.275	19.74***	
		모-독립	.294	.086	.011	.128	2.81	
	학교에 대한 흥미	모-독립	.238	.056	.056	.238	14.78***	
		부-독립	.243	.059	.003	.068	.74	
	규범준수	모-독립	.195	.038	.038	.195	9.75***	
		부-독립	.213	.046	.008	.112	1.94	
학업태도	모-독립	.200	.040	.040	.200	10.24**		
	부-독립	.202	.041	.001	-.039	.23		
전체	모-독립	.266	.071	.071	.266	18.86***		
	부-독립	.272	.074	.003	.070	.78		

\*\* $p<.01$ , \*\*\* $p<.001$

### 3. 부모에의 애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부-모-애착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에 대해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과 <표 13> 참조). 남녀 학생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유연성 하위변인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중학생의 부모-애착 점수와 학교 적응유연성 점수와의 상관

	종속변인	부-애착	모-애착
남	학교에 대한 흥미	.32**	.38**
	규범준수	.25**	.21**
	학업태도	.09	.15*
	전체	.33**	.37**
여	학교에 대한 흥미	.28**	.30**
	규범준수	.20**	.24**
	학업태도	.13*	.17**
	전체	.27**	.31**

\* $p<.05$ , \*\* $p<.01$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부-애착( $r=.33$ ,  $p<.01$ ), 모-애착( $r=.37$ ,  $p<.01$ )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하위변인 중에는 학업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부-애착( $r=.09$ )과의 관계보다 모-애착( $r=.15$ ,  $p<.05$ )과의 관계에서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부-애착( $r=.27$ ,  $p<.01$ ), 모-애착( $r=.31$ ,  $p<.01$ )과 학교적응유연성 전체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하위변인 중에는 부-애착과 모-애착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에 대한 흥미 변인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표 13>에서는 남학생의 모-애착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학교에 대한 흥미, 학업태도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하위변인에 따라 14.3%(학교에 대한 흥미,  $p<.001$ )~2.2%(학업태도,  $p<.05$ )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애착은 각각 2.0%, 0.0%의 설명력에 그쳤다. 반면 규범준수는 부-애착이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6.3%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고 모-애착은 0.6%의 설명력에 그쳤다. 여학생의 모-애착은 학교적응유연성 전체와 하위변인 모두에서 첫 번째 변인으로 투입되어 각각 2.9%( $p<.01$ )~9.4% ( $p<.001$ ) 정도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애착은 0.3%~2.3%의 설명력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남녀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은 모-애착의 영향이 부-애착의 영향보다 높으나, 남학생의 규범준수는 부-애착의 영향이 모-애착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부모-애착에 따른 학교 적응유연에 대한 단계별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sup>2</sup>	R <sup>2</sup> 변화	β	F	
남	학교에 대한 흥미	모-애착	.379	.143	.143	.379	40.33***	
		부-애착	.398	.158	.015	.149	4.30*	
	규범 준수	부-애착	.252	.063	.063	.252	16.33***	
		모-애착	.263	.069	.006	.093	1.50	
	학업 태도	모-애착	.150	.022	.022	.150	5.51*	
		부-애착	.150	.022	.000	.009	.01	
	전체	모-애착	.367	.135	.135	.367	37.51***	
		부-애착	.394	.155	.020	.174	5.81*	
	여	학교에 대한 흥미	모-애착	.295	.087	.087	.295	23.62***
			부-애착	.333	.111	.023	.177	6.49*
규범 준수		모-애착	.240	.057	.057	.240	15.04***	
		부-애착	.255	.065	.008	.102	2.04	
학업 태도		모-애착	.170	.029	.029	.170	7.35**	
		부-애착	.178	.032	.003	.061	.71	
전체		모-애착	.307	.094	.094	.307	25.75***	
		부-애착	.336	.113	.018	.156	5.07*	

\* $p < .05$ ,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

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수준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심리적 분리의 영향력의 양상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은 부-독립의 영향이 모-독립의 영향보다 높고, 모-독립의 영향이 높을수록 규범준수는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은 부-독립의 영향이 거의 없으며 모-독립이 보다 높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학업태도에서는 모-독립의 경향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노력 제공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여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의 심리적 분리를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심리적 분리 정도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심리적 분리와 마찬가지로 부모애착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이 적응유연 청소년에게 고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소로 작용하여 높은 적응을 보이도록 완충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박지아(200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나 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 이들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보이는 중학생의 경우 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맺고 있는 애착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애착과 관련하여 한 가지 두드러진 연구 결과상의 특징은 부모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앞서 살펴본 심리적 분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아버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더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자녀의 효과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는 중학생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자식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심리적 분리를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학교적응유연성 관련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던 일반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지 않았던 가족 관련 변인인 심리적 분리와 부모 애착을 검토하였고 이들 변인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연구 설계상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해석해야하고 이 분야의 후속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참가자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만을 사용했다. 심리적 분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학교적응유연성을 자기보고식이 아닌 방법(예, 행동 관찰)으로 측정했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중학생 자녀간의 심리적 분리 및 애착 간계에 대한 자녀의 지각만을 측정했다. 이 관계에 대한 부모의 지각을 배제한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한다.

## 참고 문헌

권해수(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김은경(2005) 청소년의 리더십 생활기술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수(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2), 501~518.  
 남영옥·김재한(2003). 알코올중독자를 부모로 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1), 199~221.  
 류재중(2006).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일경제 2007. 9. 11일자(사회) 기사 : 서울청소년 50% “화목한 가정이 행복조건”.  
 박지아(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적응유연 청소년, 위험 청소년, 유능 청소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유미·이윤형(2009).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한 조손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3), 41~68.  
 신현숙(2003). 적응유연성 연구의 전망: 개념 및 방법론적 문제와 학교-기반 예방을 위한 시사점, *교육학연구*, 41(2), 431~456.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성경(2000). 청소년 탈 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38(3), 81~106.  
 유옥순(200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대처행동 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진이(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1, 229~257.  
 이경화·정혜영(2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8~18.  
 이정화·전윤숙·김인경(2007). MMTIC에 의한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288~30.  
 이희영·최태진(2004). 심리적 분리와 대학생활적응: 성별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중재 효과

- 과, 한국청소년연구, 109~136.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장휘숙(2003).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학, 55. 255~281.
- 전화연(2006). 청소년의 가정환경변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 생활 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선(2008). 학생청소년이 인지한 사회적 관계 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필(2004). 청소년 쉼터가 가출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통계연보.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1), 32~50.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los,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Choi, K.(2002). Psychological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mong Korean American students: The rol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8~475.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the adolescence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 Norton.
- Lee, H., & Hughey, K. F.(2001).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LeFrancois, G.(2001). Of children: An introduction to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9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kun, B. F.(1984). Working with adults: Individual, family, and career development, Monterey, CA: Brooks/Cole.
- Palladino, D. E., & Blustein, D. L.(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159~166.
- Quintana, S. M., & Lapsley, D. K.(1987). Adolescent attachment and ego identity :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to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Journal of Adolescence Research, 2, 393~409.
- Rice, K. G.(1992). Separation-individu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203~213.
- Rice, K. G., & Cummins, P. N.(1996). Late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50~57.
- Rice, K. G., Cunningham, T. J., & Young, M. B. (1997).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well-being: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89~101.
- Rice, K. G., & Whaley, T. J.(1994).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within-semester stability and change in attachment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 Development, 35, 324~330.
- Roeser, R. W., Eccles, J. S., & Sameroff, A. J.(2000). School as a context of early adolescents'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5). 443~471.
- Sroufe, L. A.(1986). Appraisal: Bowlby's contribution to psychoanalytic theory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Attachment, Separation, Lo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 841~849.
- Tabachnick, B. G., & Fidell, L. S.(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 
- 논문접수일 : 2010년 03월 23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03월 30일  
2차 - 2010년 05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06월 01일